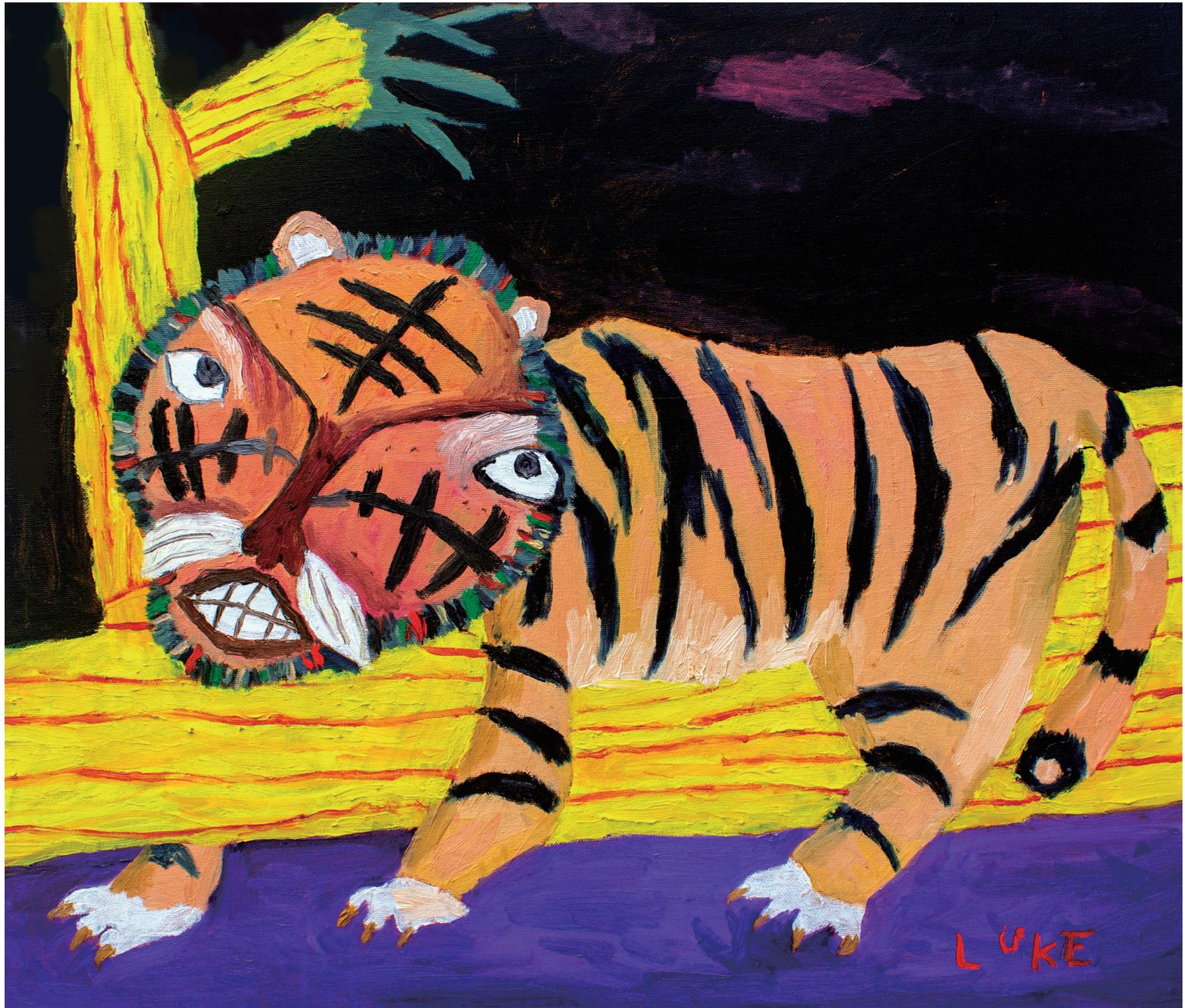




“어흥!” 용기·강인함의 상징 ‘검은 호랑이’



그림=이형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2회·그룹전 130여 회·아트페어 9회 참여 ▲현재 갤러리 19karen·Studio gallery group 소속 작가 ▲www.artsluke.com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신성하고 두려운 초월적 존재

우리나라 상징 대표 동물
열두띠 중 가장 친근·다양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계
전통적 민족 감정 관련 있어

호랑이 기운 듬뿍 받아
코로나19 극복하는 한해 기원

2022년은 임인년(壬寅年), 호랑이의 해다. 임(壬)이 흑색,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해 용기와 강인함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의 해’다.

호랑이는 십이지의 세번째 동물로 육십갑자(六十甲子)에서 병인(丙寅), 무인(戊寅), 경인(庚寅), 임인(壬寅), 갑인(甲寅)의 순으로 나타난다. 공간적으로 호랑이는 동북동에 해당하고, 시간적으로는 음력 정월, 오전 3시부터 5시까지의 때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동물을 띠동물로 삼고, 이를 토대로 성향을 따지거나 궁합을 본다. 또 한해의 운수나 일생의 운명을 점치기도 한다. 호랑이띠는 용감하고 진취적이며 솔직한 성향으로, 말피와 개피와는 궁합이 매우 좋고, 소피와 원숭이띠와는 상극을 이룬다는 속신이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 호랑이는 고양잇과 동물로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털을 몸 전체에 두르고 있다.

수명은 15~20년이며 임신 기간은 100~110일 정도인데 한번에 보통 2~4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육식성 동물인 호랑이는 달리기가 빠르며 도약력이 뛰어나다. 또한 강력한 송곳니와 앞발이 있어 다른 동물을 사냥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야행성 동물인 호랑이는 해질녘을 좋아하고 주로 산에서 생활하는 야생동물이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많이 서식했으나 현재는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호랑이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만큼 용맹함을 상징하며 각종 설화에는 효와 보은을 실천하는 어진 동물로 등장하는 등 일찍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동물이 됐다.

이같은 호랑이의 대표성으로 인해 오늘날 스포츠나 기업, 대학 등의 상징물로 표출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 ‘호플이’와 2018년 평창올림픽 ‘수호랑’은 호랑이를 활용해 만든 대회 마스코트로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서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축구 국가대표 엠블럼도 호랑이다. 프로야구단 KIA 타이거즈 마스코트 ‘호걸이’도 역시 호랑이다.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은 “호랑이 이야기를 모아 ‘아라비안나이트’를 만들 곳은 우리뿐”이라며 “우리나라를 호담국(虎談國)”이라고 불렀다. ‘조선잡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호랑이 관련 이야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열두띠 동물 중 호랑이가 한국인에게 가장 친근하고 다양한 모습을 지녔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지혜롭고 어진 동물로, 때로는 어리석게 희롱당하는 익살스럽고 어리숙한 동물로 인식됐다. 반면, 신성하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다.

산의 군자로서 호랑이는 앞뒤려 있어도 모든 해아림이 그 속에 있다고 한다. 앞뒤린 자세에서 신지를 받아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헤아리고 사려 깊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삼국시대 서사문학에서부터 호랑이가 등장했고, 후대에서는 더욱 다양한 형상으로 전승됐다. 특히 호랑이는 우리 민족과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형성해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인이 가지는 호랑이의 이미지는 짐승이라는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 보다 특수하고 다양한 성격으로 분화됐으며, 이는 전통적이며 민족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다.

또한 호랑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동물이다. 이에 동물 보은설화에서 보은하는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등장해 인간사에 관여하며, 권선징악의 윤리적 역할을 담당하는 존엄한 절대자의 성격을 지닌다.

동물 보은설화를 살펴보면 어떤 형태로든 인간이 먼저 시인하면 호랑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내용이 많다. 특히 인간의 결핍을 제거해 주는 과정에서 호랑이의 초월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물 보은설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포악한 짐승이 아닌 인격화돼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존재로 나와 보은하며, 더 나아가 신이(神異)한 능력을 지닌 신령스러운 동물로서 신의 대행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호랑이는 위협적이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온, 전통적 민족 감정과 관련된 동물이라 할 수 있다.

호랑이는 단군신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의 배필 자리를 놓고 호랑이와 곰이 경쟁을 벌여 곰이 승자가 됐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서 호랑이는 곰보다 월등하게 많이 등장한다. 이는 구술과 기록에 나타난 수많은 호환(虎患)의 흔적으로 유추해 보는데,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호랑이는 우리 문화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 기운을 듬뿍 받아 온 국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무탈한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최진화 기자·국립민속박물관 제공